

4차 긴급재난생활비 내일 지급 시작

광양시민 1인당 30만원...아동·청소년 40만원 추가 조속 사용 당부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시가 시민 1인 당 30만원씩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30일부터 지급한다. 특히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40만원을 추가해 총 70만원을 받는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급하며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원이다.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등록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나이·중복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시에 국내 체류자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주자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긴급재난생활비는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지류) 5만원으로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의 광양

사랑상품권(카드) 55만원과 온누리상품권(지류) 15만원으로 지급한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7월 1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집중 신청

시간을 운영한다.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해진 요일에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휴무 정오-오후 1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 장소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조금이나마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광양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급효과를 위해 조속히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구례군의회, 옛 문척교 철거 반대 건의안 채택

구례군의회는 28일 "지난 25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장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옛 문척교 철거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 구례군의 현안인 이문척교 철거에 따른 의회 차원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구례군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동맥이자 근대화의 상징이고, 군민과 함께 해온 옛 문척교는 단순한 교통신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가치 평가 선불리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옛 문척교 문체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에서 당사자인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시문 의장은 "관계 기관은 직접 당사자인 군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옛 문척교 철거 공사를 중지하고 철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옛 문척교 존치를 바탕으로 하천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검토·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옛 문척교 문체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에서 당사자인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시문 의장은 "관계 기관은 직접 당사자인 군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2023 전남농업경영인대회

광양 개최 최종 확정

광양시는 28일 "2023년 제17회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장소로 광양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전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최초로 개최하게 됐다.

제17회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4개 시·군(광양·영광·무안·신안)이 유치를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지난 24-25일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24명의 평가단이 각 시·군의 유치 계획과 현장 실사를 평가해 최종 유치장소를 결정했다.

지난 25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치 설명회에는 정인화 시장, 서영배 시의회 의장, 백성호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광양시의회원 강정일·임형석 도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회원과 광양시청년회 등 많은 시민이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정인화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이 힘든 시기이며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통해 농업이 발전할 방안을 찾고 광양농업도 발전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치 포부를 밝혔다.

2023년 제17회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2023년 8월 중 3일 간 개최되며 장소는 광양을 시천별 일원이다. /광양=양홍렬기자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이 최근 전국 교원 54명을 대상으로 '숲에서 쉬어가다' 지리산 역사여행' 직무연수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 제공>

'숲에서 쉬어가다' 지리산 역사여행 인기

이론·현장학습 조화 체험 프로그램 등 구성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 54명 교원연수 성료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의 지리산 역사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구례군은 28일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지리산역사문화관 전국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최근 총 2회에 걸쳐 연수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2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상반기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숲에서 쉬어가다, 지리산 역사여행'이란 제목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리산의 역사·문화·생태·향토문학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리산의 신화 이론

강의와 생생한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해 지리산 자락 아래서 치열하게 살았던 지식인들의 삶에 대해 깊게 다가가 보고 이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응용하고 도움이 되도록 연수 내용을 구성했다.

연수 세부 내용은 ▲북극성 태을신이 살고 있는 지리산의 전설과 신앙 ▲매천 황현의 학문과 삶 ▲구례 지식인들의 민족정신 교육 ▲지리산의 자연생태와 정원문화다.

이 중 매천 황현의 학문과 삶, 구례 지식인들의 민족정신 교육은 지리산역사문화관 제2·3관에 조성된 지리산의 역사와 매천 황현선생 전시관을 관람한 뒤

광의면 호양학교·매천사에 방문해 이론·현장 실습이 병행되는 생생한 연수로 진행됐다.

또한 tvN 윤스테이 촬영지였던 쌍산재와 공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을 방문했고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의 다과상 만들기 목공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10월 재개관한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은 ▲제1관 강따라 구례 옛 사진전과 옛 경도구 전시 ▲제2관 산따라 지리산 및 구례, 구례의 역사, 동학혁명, 정유재란과 석주관 전투 등 전시 ▲제3관 강따라 매천 황현실, 어린이 체험관 전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추억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만3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구례군, 여성친화도시·군민참여단 간담회

구례군은 28일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군민참여단 22명을 구성했고 올해에는 29명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여성활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신규 군민참여단 위촉장 수여와 군정 정책방향·여성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등 정책 개선에 군민참여단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례를 위한 협력파트너로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선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중마동 우림필유아파트, 우림경로당 개소

광양시 중마동 우림필유아파트는 28일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시의회 의장, 김태균 도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김종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 전유경 부녀회장, 최충한 입주자대표, 김형택 관리소장, 이정식 중마동장과 통장, 마을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 경과보고, 다과·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허충상 노인회장은 "경로당이 문을 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개 감사드린다"며 "아파트 입주 후 10년 만에 개소한 만큼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화 시장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 커플유

초혼·재혼·전문직

커플매니저 프리랜서(알바) 모집!

모집부문	비고
프리랜서 (알바) 남·여○명	교통비 + 수당지급 오전 미팅후 퇴근시간 자유 상담 후 결정

• 위 치 : 상무 세정아울렛 부근 (치평동 1314-4)

062)381-6669